



4.9 총선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예비후보 집중탐구

김영우

중앙정부와 강한 인맥 갖춘 사람이 포천·연천 문제 해결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포천연천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력 및 경력

- ▶성명 : 김영우(41세)
- ▶출생지 : 포천시 신음동
- ▶주요학력
 - 포천초등학교 졸업
 - 경희중·고등학교
 - 고려대 정치외교 학사·석사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리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요경력
 - 전 YTN기자
 -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후보 이명박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상황실 부실장
 - 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한반도대운학연구회 운영위원
 - CSI(국제정책연구원) 정책국장
 -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부팀장
- ▶취미
 - 아이들과 산책하기
- ▶가족관계
 - 본인, 처(김수정, 41세) 유섭(이들, 10세) 유진(딸, 8세)
- ▶평소소신
 - 진실은 통한다

총체적인 의미에서 포천시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최근 포천은 많은 개발계획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고, 자녀들의 교육에 허리가 휘고 있다. 지역경제는 점점 침체되고 있고,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와 경쟁하던 인근도시인 고양, 양주, 파주, 남양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포천이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정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포천은 어떠한가? 포천의 정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본인의 정치를 접고 한미음으로 포천 살리기에 다 같이 매진하여야 합니다. 주변도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천 안팎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포천 시민이 살맛나게 하는 정치를 함께 시작하여야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화합이 선행된다면 산적해 있는 포천의 현안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규제정책은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산업 인프라 유치와 기업들의 투자확대, 신도시의 성공과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등의 새로운 교통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주 및 지역 재화의 유출 방지는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등의 교육시설 확보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미FTA로 인한 농축산업 문제, 미군공여지역피해문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문제 등도 함께 고민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포천시와 연천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과 중앙정부와 강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포천시와 연천군의 각종 현안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작지만 강한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만 우리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분야별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1. 지역경제부문
포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03년 기준, 포천지역 총 생산량 2조4천억 원 중에서 1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화가 외부로 유출되고 7천억 원 정도가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 재화가 포천시 안에서 선순환 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직장과 거주지 분리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재화가 다른 원인은 대부분 자녀 교육문제 때문입니다.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정책 폐지 혹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봉화골 산업단지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문
더 좋은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의정부 등 인근 도시로 전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외에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교육문제의 해결은 지역재화 유출방지와 교통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도43호선과 국

도47호선의 일일 교통량 6만2천대 중 출퇴근 차량만 2만5천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소재 4년제 종합대학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대진대, 포천중문대의, 경북대학교의 상생협력 관계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의 평생교육도시 기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3. 교통부문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포천시의 성장동력이며 포천 발전의 전제조건입니다.

현재 포천은 철도나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없고 동서축과 남북축이 제대로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약한 교통인프라는 각종 인프라 유치와 관광산업발전에 피해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포천과 연천지역의 교통인프라 부족현상은 그동안 정권자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소외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잇는 원활한 교통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장기 계획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더불어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두천 - 가산삼거리간 4차선 확장, 양주덕정과 송우리를 잇는 도로확포장 등을 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취약한 교통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재 43, 47번 국도에 대한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4. 관광산업부문
포천은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풍부한 개발가능성 및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정책과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대북연계관광도시의 거점 선정도 미흡합니다. 포천과 연천지역에는 크고작은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을 흡수할만한 대규모 축제는 많지 않고 실질적인 관광수입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해외 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관광휴양도시 건설과 더불어 포천과 연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축 축제와 개성인삼축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를 서로 연결하여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농업부문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택형 맞춤형농업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영농현대화사업, 농업기반 시설사업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축사환경개선사업, 가축질병예방사업 등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외에, 현장중심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축산기술 보급사업 등 농촌지도 및 과학영농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6. 사회복지부문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중 일자리 제공이 최대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능력향상과 청소년 위기지원 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지원사업, 선진화된 보육환경조성 등 보육비 지원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지원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 단체, 기업인 등을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과

1:1매칭사업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7. 문화예술부문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포천아트밸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반월아트홀을 통해 작품성과 인지도가 있는 차별화된 기획공연을 실시하여 날로 고조되고 있는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산발적이고 소모적인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견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피니언 리더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지위의 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포천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법률개정에 적극 관여하여야 합니다. 포천시장은 포천시 발전상을 수립하여 각종 현안 해결과 미래비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에서는 도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차원에서 지역예산과 지역문

제를 해결해야 하며, 시의원 역시 시장이 제시한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있게 견제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개인의 영달과 명예만을 위해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공백이 되었던 초심을 잊지 말고, 포천의 발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총체적으로 협력해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할 사항

4월 9일 포천연천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우리모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어느 후보가 부패하고 부정한 정치풍토를 종식시킬 수 있는가?
어느 후보가 포천연천의 진정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어느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조를 받아 낼 수 있는가?
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포천연천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입 학교중심지역 윤 빌딩 3층, 4층 대

추산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어 대경중학교, 동남중학교, 동남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윤 빌딩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분에게 최고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소음읍회장 김종현

- 윤 빌딩**
- 주소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14-1
 - 3층 30여평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 4층 30여평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 주차시설 완비
 - 인근 영화아파트, 주공5단지, 우정아파트 위치
 - 임대문의: 가락중천회 포천시지회 소음읍회장 김종현 (010-2783-1575)

